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는 죽음의 인식의 유무를 기준으로 제시문 <가>, <다>와 제시문 <나>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제시문 <가>와 <다>는 죽음을 인식하지만 그 방향에 대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제시문 <가>에서 죽음이란 인간이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그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고 생명의 끝이 아닌 인간의 삶과 연결 되는 것이다. 또한 죽은 사람을 묻는 행위를 통해 자연적 본능을 거스르는 인간의 본성을 엿볼 수 있으며 그들을 산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려는 생각도 유추할 수 있다. 반면 제시문 <다>에서는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기 싫어하고 피한다는 인식이 드러난다. 죽음 때문에 생겨나는 공포감이 사람들에게 삶에 대한 애착을 이끌어 내고, 그 애착이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이라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아무리 현재의 삶이 호화롭고 부유하다 할지라도, 결국 죽음 앞에선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제시문 <나>에서는 어떤 고릴라 집단에서 한 고릴라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다른 고릴라들의 반응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고릴라의 죽음이 한 학생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다른 고릴라들이 그 고릴라의 죽음을 인식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시문 <가>를 참고해 보면, 죽음을 사유하는 것이 인간만의 특별한 능력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제시문 <나>의 고릴라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시문 <가>, <나>, <다>는 인간의 죽음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알 수 있고, 그 인식의 한 방향의 관점으로 볼 때 인간과 다른 동물들도 과연 죽음이란 것을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다.

문제 2.

제시문 <라>의 실험은 피실험자들이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죽음과 관련된 단어를 떠올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여기서 평균 1.80개로 죽음에 대한 단어를 가장 많이 만들어낸 집단은 실험 1의 집단 '을'이다. '을'에 배정된 피실험자에게는 '친구'에 대한 표현을 쓰도록 했으며, 이 '친구'라는 것이 이러한 실험의 결과를 만들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제시문 <가>의 입장에서 보면, 죽음은 곧 우리의 삶의 연장선상에 있고 '친구'라는 것은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불가분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또한 실험 2의 '을' 집단은 평균 0.71개로 비교적 많은 단어를 완성시켰다. '을' 집단의 피실험자들은 '복도를 지나가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이 실험에 참여하여 실험 1, 2의 '갑' 집단 보다 죽음에 관한 단어를 많이 만들었다. 이 역시 죽음은 삶의 연장선상으로 생각될 수 있다는 제시문 <가>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평균 0.21개로 가장 적은 단어 완성을 한 집단은 막 화장실에서 나온 실험 2의 집단 '갑'이다. 집단 '갑'의 피실험자들은 '배설물'과 관련된 상황을 직접 겪고 실험에 참여한 집단이다. 결국, '배설물'과 관련된 상황 때문에 죽음에 대한 단어를 떠올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제시문 <다>를 참고하면, 사람들은 부패하는 것들의 악취와 추악한 모습으로 인해 그것들을 피하고, 죽음이란 것도 사람이 죽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썩게 되기 때문에 멀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배설물'과 관련된 상황이 악취나 더러운 모습들을 유발하게 하고, 그런 생각들이 더 나아가 죽음에 관한 것들을 기피하게 만든다고 유추할 수 있다.

과연 죽음을 우리의 삶과 단절되어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사람들이 현재 까지 해왔던 장례와 제사, 성묘 등의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이 죽었을 때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에 대해서 한번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생각은 우리 삶 속에서의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으로 인정되고, 그것은 곧 삶과 죽음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